

천호성 “학생 성장 중심교육으로 대전환”

(전북교육감 당선인)

고창 출신 교육학자·현장교육 전문가... 15년 교사, 20년 교수 경력

전북교육 혁신·교육자치 확대 기대... ‘50대 리더십’ 시대 개막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택되며 교육 혁신과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967년 고창에서 태어난 천 당선인은 전라고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수업연구를 전공해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교사와 교수, 교육정책 연구자를 두루 경험한 그는 평생을 교육 현장과 교육 연구에 헌신해 온 대표적인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천 당선인은 해리고 전주여상, 이리고 등에서 15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지도했고, 이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며 예비 교사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재직 기간 동안 500회가 넘는 학교 방문을 통해 수업연구와 교육 현장 개선 활동을 펼치며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람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하며 학생의 성장과 행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교육 현장을 넘어 국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육특별보를 맡아 미래교육과 교육혁신 정책을 제안했으며, 문

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교육·복지 정책 연구에 참여했고, 현재는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교육자치 확대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천 당선인은 전북 민주진보교육 진영의 대표 주자로도 꼽힌다. 그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학생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의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12만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 일후보선출위원회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비록 당시 선거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참여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전북 교육개혁 세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26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는 전국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15인과 함께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을 선언하며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교육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시대 미래교육,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

하기도 했다.

천 당선인은 교육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초·중등교육의 근본 문제를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 체제에서 찾고 있으며, 교육이 경쟁의 수단이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공공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기후·환경·생태교육, 평화교육,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미래세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역 사회에서는 천 당선인이 새로 선출된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50대 광역단체장 시대’를 열며 되면서 전북 정치권과 교육계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천호성 당선인은 교사와 교수, 교육정책 전문가를 모두 경험한 보기 드문 교육감”이라며 “현장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전북교육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앞으로 학생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전북교육 실현, 교육격차 해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전방이 다. /특별취재반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택되며 교육 혁신과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2일 천 당선인이 전북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청 신입 차장에 남영우 국토부 기조실장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 신입 차장에 남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남 신임 차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윌라메트대 경영학 석사 및 충북대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기술교시 30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토·도시개발 정책 수립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도시계획과 국토개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과 도시공학 분야 전문가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새만금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호 기자

전주보름학교·군산지음학교 내년 개교 특수학교 교명 확정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전북지역 특수학교 2곳의 교명이 전주보름학교와 군산지음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공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설 특수학교 교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특성,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교명 공모를 시작으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선호도 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1차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 5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5월 29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교명을 결정했다.

전주보름학교는 가장 밝고 동글게 차오른 보름달처럼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온전히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교육공공체를 의미한다. 학생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채워 미래 역량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군산지음학교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가능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공체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학교명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026 유치원 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유치원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5월 전주차량사상선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유치원 컨설턴트와 희망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유치원 컨설턴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함께 성장하는 컨설팅의 특별한 한 곳 차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현장 지원 역량을 높이고 교원과 컨설턴트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5세 이음교육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법과 소통 전략을 공유해 컨설턴트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연수에서는 컨설턴트의 역할과 컨설팅 방법을 비롯해 5세 이음교육 컨설팅 우수 사례 소개,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 나눔 등이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619억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

고물가 대응·교육격차 해소·AI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중점 투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4,437억원보다 2,619억원(5.9%) 증가한 4조7,05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조에 맞춰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75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운영비 66억원을 증액하고 통학비

스 운영과 국제교류 수업 지원 등에 9억 원을 반영해 교육활동이 안정적인 것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과 학습준비물 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89억 원을 편성했다.

AI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의 AI 인재양성 정책에 발맞춰 총 79억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71억원은 인공지능·과학교실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과 디지털 기술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전체 추경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1,748억원이 배정됐다. 학교 신설과 증축 등 계속사업에 798억원, 노후시설 개선에 53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급

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에 42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과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공무원 수당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필수·의무적 경비 688억원도 편성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돼 교육 현장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AI 교육·교육격차 해소 집중...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열고

올해 실행계획 심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지역상생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일 본청 회의실에서 제16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해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를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AI 디지털시대 기반 미래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핵심 축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중점 추진 과제는 모두 18개로, AI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제16회 적극행정위원회.

기반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와 교육데이터 허브 구축, AI 수업 혁신 지원, 안전사고 예측 모델 개발, 학부모 참여형 소통 플랫폼 구축 공동교육과정 수업 방식 다양화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담부서 운영, 국민신청제와 사전컨설팅 확대, 면책 및 지원제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사례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극행정 예방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학생의회가 3일 전주시 객사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민주주의 실천, 함께 해요”

전북학생의회, 전주 객사 일대서 지선 투표참여 캠페인

전북학생의회의장 이강준(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거리 캠페인을 펼쳐 학생 유권자와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북학생의회는 3일 전주시 객사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 7,362명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학생의회 의원과 협력교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객사 일대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학생의원들은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라는 문구를 활용해 선거권 연령을 알리고 한 표의 가치와 투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학생들은 거리 홍보를 통해 투표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말부터 도내 고등학교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교육지원청과 지역학생의회도 지역별 홍보 활동에 동참하며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힘을 보탰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탐구수업 연수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탐구수업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대상 학교는 전주민주초와 전주유림초, 전주서원초, 전주자연초, 전주진북초, 전주초포초 등 6개 초등학교다. 사회·수학·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다.

연수는 입문형과 입문+실행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특히 입문+실행

형은 단원 설계부터 수업 적용, 피드백, 성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참여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 설계 방법과 탐구 중심 단원 구성, 다양한 사고전략 활용 방안 등을 공유하고 실제 수업 사례를 적용·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 전 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